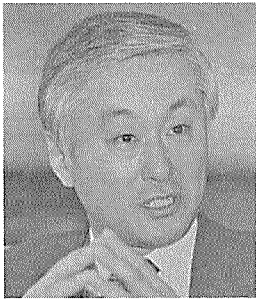


전자부품 산업의 경쟁력 문제와 협의회 역할



석진철
오리온전기(주) 사장
부품산업협회 회장

우리나라의 공업화 진전은 '8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 전자와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이행되면서 점차 선진국형 산업기반을 갖추어 가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부품산업은 생산과 수출에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실현, 1991년 현재까지 연평균 25%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세계 제3위의 전자부품 생산국으로 떠올랐고, 국내 전자산업 가운데서 부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 또한 전체의 약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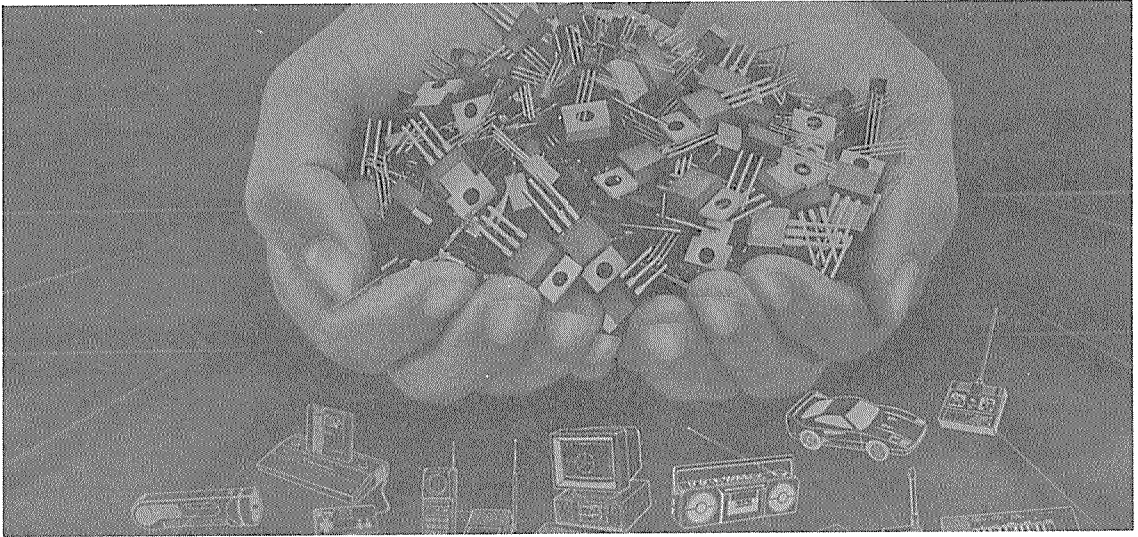
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즉, 그간 국내 전자공업 발전에 부품이 얼마나 큰 견인차로 역할해 왔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전자부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그동안 여러모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90년대 들면서 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국내외 전반에 걸친 기업환경 변화가 우리에게서는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그것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우리경제의 현황

우선, 선진 각국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으로 기술혁신은 하루가 다르게 가속도가 붙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의 사정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방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에 있다. 과거 자본의 절대적인 독점으로 위세를 떨쳤던 선진 각국이 이제 기술보호주의라는 명분을 걸며 핵심 및 첨단기술의 절대적인 '독점'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자본의 무기화를 넘어 이제 기술의 무기화가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셈인데, 핵심 및 첨단기술의 해외의존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사정으로서의 날이 갈수록 기술과 품질, 모든 측면에서의 국제 경쟁력 상실을 감내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시장의 전반적인 블록(Block)화 및 수입규제 강화 경향, 그리고 최근 들어 가격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과 품질, 디자인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추격해 오는 후발개도국 등에 의해 현재 우려할 만한 상태로까지 이르러 있는 수출부진이 혹여 최악의 상황을 낳지나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더욱이 속속 개방되고 있는 내수시장의 구조변화는 더



전자부품산업을 고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상 국내기업의 안전한 제품공급처로서 남아 있길 거부하고 있고, 급격한 임금상승에 따른 손익구조의 악화와 함께 기술 및 기능인력의 제조업 회피현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인력 부족 등도 우리경제의 성장여력을 막는데 단단히 한 묶음을 하고 있는 터이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이러한 마땅찮은 환경변화를 마치 증거라도 하듯 얼마전 국내 경제지와 각 일간지들은 올해 상반기를 정리한 주요 상장기업들의 결산내용을 게재하면서 한결같이 '실속없는 성장', '속 빈 강정'이라는 등의 비슷비슷한 머리기사로 지면을 채웠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수습이라 자위할지 모르나, 우리경제가 지금까지 누리던 '성장'과 '내실'의 두마리 탐스런 토끼잡이를 계속하기에는 힘이 너무 부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분명하다. 다소의 불균형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60년대 이래 줄곧 장미빛으로 채색되어 왔던 우리경제의 앞날이 이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장애에 부딪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2.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 악화

우리경제를 지탱시키는 한 만만찮은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자부품산업의 경우에도 넓

게는 여타의 산업분야와 그 사정이 별로 다르지 않고, 좁게는 전자공업 전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서로 밀접히 얽혀 있다.

그간 전자부품산업은 자체적인 기술개발력 낙후로 주로 전통적인 재래기술 습득에만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주요 핵심기술의 개발능력이 부족하며 이와 관련한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 또한 높은 편에 속했다. 이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수입선에 의한 산업의 예측화가 불가피해지기 마련이었고, 세계시장의 수요동향에 맞춘 새로운 기술제품 생산이 어려워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서를 밟아갈 수 밖에 없었다. 수출시장의 실제적인 동향에 비취 언제나 한 걸음씩 그 행보가 늦춰진 것인데, 따라서 단기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인력 확보에도 그리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품의 해외의존도는 전자제품이 갖고 있는 수명주기의 단축과 다양한 모델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세트의 수명이 짧고 모델 또한 다양해 이에 소요되는 부품은 자연 소량·다품종화 요구가 증대되기 마련인데, 각 부품업체들은 수요규모가 작은 데다 일단 개발이 완료되었다 해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의 열세를 예상, 과감

한 투자를 꺼려해 자연 수입의존도를 가중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국내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가전3사들이 품질과 가격을 이유로 적극적인 국내 전자부품산업 육성을 기피해온 데에도 원인이 있다. 세트-메이커의 수입부품 선호는 곧 부품업체의 신기술 투자욕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전자부품의 수요업체와 공급업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내 전자부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계와 각 기술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정책의 유행성 기술개발 전략도 상당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우리 전자부품업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기술기반 상황은 물론 이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발전가능성을 검토하기보다, 그 분명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밖에 상정할 수 없는 핵심 혹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관심과 연구진행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부품업체가 안고 있는 취약한 기술기반으로는 첨단기술만의 성공적인 제품화 보장이 어렵고, 더하게는 기술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품도에서의 첨단기술 개발이 어느정도 수준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너무 많다.

3. 전자부품산업협회의 방향모색

우리 앞에 놓인 이처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일관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각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과 열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따라서 국가적 위기상황의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단결해 기업간 공동의 협력체제를 이루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6월 14일의 창립 총회를 거쳐 발족한 전자부품산업협회는, 바로 이러한 우리경제의 우울한 전망과 전자부품산업의 위기상황을 업

계 모두가 하나의 공동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악화되고 있는 전자부품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진지한 첫걸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의 노력은 이제 겨우 그동안의 슬한 말잔치를 끝내고 우선 실현가능한 행동부터 시작해 놓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창립 총회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한 일련의 부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방향제시는 앞으로의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인가를 요약해 주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협의회는 우리 부품업체가 생산해 내는 제품과 신개발품 홍보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부품과 관련한 국내의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가 가장 유용할 수 있겠고, 제품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 이벤트의 창출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업체간 정보교환 및 이를 통한 인력, 기술, 제품생산의 공동협력을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동일품목을 생산해 내는 업체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상호 도출하고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큰 기업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간의 교류는 각자의 위치에 맞는 전문화된 제품 개발을 유도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장자동화와 각종 공정개선 활동의 정보교류는 인접한 여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전략 또한 동종업체간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추진, 기술경쟁력을 최소한 현재의 2배 이상은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조설비와 원부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제조원가 부담의 저하와 더불어 각 업체의 노동집약적 품목에 대한 해외진출 방안도 공동으로 협의해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4. 사랑방 모임에서 키우는 응전력

전자부품산업협의회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장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여기에는 몇가지 난제가 따를 것이 분명 예상된다.

쉬운 예로, 각 부품업체간의 경영환경이 서로 달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공통된 의견수렴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협의회가 궁극적인 측면에서 업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품업체가 그간 관행처럼 지녀온 단기적 이익달성 욕구를 얼마나 자체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협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공동목표의 한계가 미리 예상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이는 협의회가 별도의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도 더욱 그런데, 협의회 주체의 간소한 세미나 하나도 현재로서는 자유로이 개최할 형편이 못된다는 사실이 앞으로 협의회가 가질 위상 정립과 함께 매우 시사적인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협의회가 국내 전자부품산업계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사랑방' 모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산하에 각 품목별로 12개

분과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매우 밝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전자부품업계는 그간 세트-메이커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놓아본 경험이 별로 없고, 때문에 차제에 이 협의회를 통해 정부정책 등 향후에 전개될 여러 공업화 정책 시작과 수행에 나름대로 유리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부품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각 기술연구소와의 창구를 협의회로 일원화 하여 산업현장과 각부 분과위 관계를 유기적으로 유지, 관민이 현재의 부품산업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기도 하다.

기업환경의 일정한 변화양상과 그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앞날을 대비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통해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변화된 환경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자부품산업의 현황과 그 전망을 조명하는 데에 있어서의 전자부품협회가 갖는 역할 문제 또한 환경의 새로운 변이와 그 양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전자부품산업의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유지·고도화시키면서 일련의 내부적 힘을 축적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보람과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시다.